



보도시점

배포 즉시 보도

배포

2024. 12. 8.(일)

## 한-쿠바 수교 계기 독립유공자 후손 등 고국 땅 밟는다

- 재외동포청, 임천택 지사 손녀 등 3명 초청...5일간 한국 문화 체험

□ 재외동포청(청장 이상덕)은 지난 2월 이루어진 한국과 쿠바 수교를 기념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을 포함한 쿠바 한인 3~4세 3명을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초청한다.

○ 이번에 방한하는 한인 후손은 독립유공자 임천택 지사의 손녀 노라 림 알론소(1965년생), 바라데로 특별검찰청 검사로 활동 중인 테레사 우에르타긴(1965년생), 쿠바 한글학교 수강생 마이올리 산체스(1968년생)로 구성되어 있다.

\* 임천택 지사는 1905년 쿠바 이주 후 대한애국단 쿠바지부 창설, 대한인국민회 쿠바지부 회장, 임시정부 독립자금 후원 활동을 했으며 초대 쿠바 한인회장을 지냈다. 1997년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되었으며, 국가보훈부로부터 2024년 10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바 있다.

□ 이들은 닷새 동안 한국에 체류하면서 노라 림 알론소의 할아버지인 임천택 지사가 안장된 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,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담은 독립기념관을 방문하여 선조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.

○ 또한, 대한적십자사의 협조로 건강검진을 받으며 모국의 선진 의료서비스를 체험하고, 경복궁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방문, 한복 체험 등을 통해 모국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면서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새길 예정이다.

□ 이상덕 청장은 “한-쿠바 수교를 계기로 오랫동안 모국을 그리워했을 한인 후손들을 초청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.” 라고 하며, “앞으로 양국 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인 후손들이 양국을

있는 가교 역할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데 있어 소중한 외교적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.” 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	책임자	과장	정선호	032-585-3172
		담당자	사무관	신상철	032-585-3252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